

'20년 3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주관식)

과목	수사	응시계급	순경	응시번호		성명	
----	----	------	----	------	--	----	--

1. 다음 지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서술형, 50점)

(가) 甲은 부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의 선원으로 평소 자신에게 인격비하 발언을 하면서 괴롭히던 선장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다른 선원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조타실에서 자고 있는 A를 향해 식칼을 던졌다. 그러나 실제 식칼을 가슴에 맞은 사람은 선장 A가 아니라 당직 교대를 하고 근무하던 항해사 B였다.

(1) 위의 사례에서 B가 가슴에 식칼을 맞고 그대로 사망한 경우

(2) 위의 사례에서 甲이 B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를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사실 B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나) 乙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갑판으로 나오다가, 甲이 쓰러진 B를 조타실에서 갑판으로 끌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甲은 乙에게 자신이 B를 죽였다고 말하여 실제 B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B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B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乙은 평소 채무변제 독촉을 하던 B가 죽은 것이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甲과 함께 B를 바다에 던졌다. 이로 인해 B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

문 1-1) (가) - (1) 사례에서 甲의 착오에 따른 그 죄책을 논하시오. (15점)

문 1-2) (가) - (2) 사례에서 甲의 제1행위(칼을 던진 행위)가 아니라 제2행위(바다에 B를 던진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죄책을 논하라. (단, 甲이 B를 오인한 점, 증거인멸죄나 사체유기죄는 논외로 함) (15점)

문 2) (나) 사례에서 乙이 살아 있는 B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甲과 함께 사체유기를 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착오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과 연결지어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단, 甲과 乙의 공범관계, 증거인멸죄는 논외로 함) (20점)

'20년 3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주관식)

과목	수사	응시계급	순경	응시번호		성명	
2.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약술형, 25점) 문 2-1) 함정수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0점) 문 2-2)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15점)							
3. 진술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약술형, 25점)							